

네팔에 닥친 최악의 대홍수... 교계 잇단 지원나서

955명 사망 · 4,471명 실종... 한국인 9명 연락 두절

네팔 대홍수로 수백 명이 숨지고 수많은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운데, 한국교회가 희생자와 피해 주민들에게 기도와 위로를 전하며 복구 지원에 나섰다.

네팔과 티베트에서 지금까지 955명이 숨지고 4,471명이 실종됐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투입된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지빌리티 소속 한국인 근로자 9명도 연락이 끊긴 상태다.



한국교회는 잇따라 애도 서신을 발표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과 피해 지역의 회복을 기도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 김정석 대표회장)은 28일 목회서신에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깊이 애도하며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구조와 수색, 구호 활동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현지 선교사님들과 한인회와 협력해 복구 활동에 적

극 힘쓰겠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도 네팔 국민과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국 기 독 교 회 협 의 회(NCCK · 총무 박승렬 목사도 이날 애도 서신을 보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구조와 복구가 이루어지고,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실종자가 무사히 사망하는 이들의 쫘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국내 기독교 구호단체들도 피해

주민들의 생존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월드비전은 50만 달러(약 7억 원) 규모로 식량과 임시 주거, 식수 · 위생을 지원한 뒤 주민들의 생계 회복과 아동들의 학업 복귀를 도울 계획이다.

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 · 김종명 사무총장)도 21개 협력 교단의 재난지원 담당자와 네팔선교사협의회, 현지 교회 등과 소통해 구조 · 복구 계획을 마련한 뒤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47회 전국 목회자 · 평신도 전도동력세미나 성료

“전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광진교회와 (사)미래목회연구원이 주최한 제47회 전국 목회자 · 평신도 전도동력세미나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광주 시 곤지암 소망교회 수양관에서 전국 각지의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도동력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전도자의 영성과 실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강사로는 (사)미래목회연구원

이사장 민경설 목사가 나섰으며, 김상목 합렘루아교회 원로목사와 교도소 선교사 박효진 장로가 특별강사로 참여했다.

이날 민경설 목사는 세미나에서 한국 교회 부흥의 중요한 과제로 전도를 강조하며,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메시지를 실제적인 훈련으로 연결하기 위해 ‘3시간 돌과 연속기도’를 비

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의 신앙 회복과 함께 각 교회와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전할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도동력세미나는 오랜 기간 목회자 과정과 평신도 과정을 나누어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에는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되기도 했다. 이후 목회자들의 참여 요청이 이어지면서 제44회부터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여러 교회가 단체로 세미나에 참여해 왔으며, 일부 교회는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광진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민경설 목사의 설교를 접한 뒤 세미나에 참여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을 통해 각자의 목회와 신앙 현장에서 전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3회 세계성결연맹 총회 3일간 일정 마무리

공동선언문 통해 “복음 유산 전 세계에 확산”



제23회 세계성결연맹 총회가 지난 8월 9일부터 11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타이완 타이중과 타이베이 일원에서 열려 성결복음의 확산과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사명계승, 성결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선조들이 이뤄낸 거룩한 복음의 유산을 전 세계에 확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85명의 각국 대표단은 선언문에서 영적 혼란과 도전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세상을 향해 거룩한 진군을 시작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종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굳게 지킬 것을 다짐했다. 또 거룩한 신앙을 다음세대 리더들에게 온전히 전수하고,

모든 성도를 은사대로 무장시켜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회 기간 세계선교, 신학 · 교육, 평신도, 재무회계, 여교역자 및 교역자 부인, 청년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모임을 갖고 각 분야별 현안과 협력과제를 다뤘다.

총회 둘째 날 주제강연을 한 일본홀리네스교단 스즈키 히데오 총무국장은 지난해 4월 기준, 일본 현역 목사의 평균 연령이 60.1세라며 60대 목사의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20년 후인 2045년에는 목사의 수가 현재의 약 절반(110~86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전망을 내놔왔다. 한편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대만, 일본, 미주,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성결교회와 OMS(오엔에스선교회) 등 각국 대표 85명이 참석했다. [한국성결신문 제공]

“해외 선교비 증여세 우려... 제도 보완 시급”

세기총 성명 발표, 유예기간 · 비과세 기준 마련 촉구

해외 교회와 선교단체에 지원하는 선교비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기현 장로 · 이하 세기총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상적인 해외 선교가 세계 개점으로 위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기총은 “일부 단체의 해외 자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정상적인 해외선교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지난 한 세기 동안 눈물과 기도로 쌓아온 국제선교 사역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종교계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기총은

“종교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리적인 협의가구를 구성하고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해외선교비에 대한 명확한 비과세 가이드라인 마련도 촉구했다. 교회와 선교단체가 어떤 경우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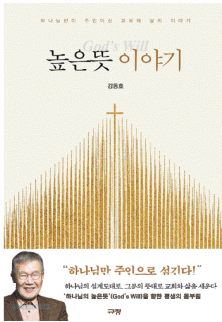
동시에 선교계의 투명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선교사 등록과 교육을 비롯해 현지 종교단체 증명, 현지 법정 영수증 확보, 국내 전문가 검증보고서 등의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정부와 교계가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신간 소개

높은뜻이야기

가장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흠여지기를 선택한 교회가 있다. 개척 석 달 만에 1천 명, 2년 만에 3천 명이 모였던 높은뜻송의교회는 성장의 정점에서 네 교회로 분립했고, 모교회는 그 이름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분립과 개척이 계속 이어지며 ‘높은뜻’이라는 이름과 정신을 공유하는 교회는 현재 열여섯에 이른다. 5천 명일 때 분립을 결정하며 “3천 명만 남겨달라”고 기도했는데, 분립 첫 주일에 네 교회에 모인 교인은 약 6천 명이였다.이 책은 그 역사의 기록이다.

저자 김동호 목사는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한다.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의 뿌리가 교회였기에, 그 복을 교인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가 찾은 답은 ‘하나님만 주인이신 교회’였다. 51세에 개척한 높은뜻송의교회에서 그는 여섯 가지 구체적인 실천 목표와 여러 장치들을 두어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했다. 예배당을 먼저 짓는 대신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배 장소를 비워야 하는 위기 앞에서, 그는 흠여집을 선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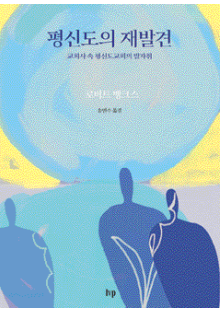
모든 행보가 독특했던 ‘높은뜻교회’의 높은뜻 정신과 ‘좋은 교회’를 세우고자 애쓰고 분투한 삶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저자/김동호 출판사/규장

평신도의 재발견

저자는 교회를 목회자의 사역을 제공간으로 이해하는 관점에 질문을 던지면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평신도가 교회를 세워 온 역사를 다시 조명한다. 초기 기독교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수많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섬기며 공동체를 세워 갔다. 그들에게 교회는 소수의 지도자가 이끄는 조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였다. 저자는 초대교회의 예배뿐 아니라 식탁과 일상의 삶까지 살펴보고, 교회가 본래 얼마나 참여적이고 역동적인 공동체였는지를 보여준다.

오랜 세월 여러 지역의 독립 교회와 파란치치, 선교 현장을 경험해 온 저자는 세계 곳곳의 다양한 교회와 공동체 사례를 통해 초대교회의 원리가 오늘날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가정교회’나 ‘작은 교회’라는 특정 형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함께 교회를 세워 가는 공동체성이다. 각 장 끝에 수록된 한국 ‘평신도교회 공부모임’의 질문과 답변은 이러한 역사와 신학의 논의를 오늘날의 교회 현실과 구체적으로 연결해 준다. 1세기 교회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평신도 중심의 교회 전통을 다시 발견하는 일은 결국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일이다.이 책은 그 오래된 질문을 오늘날의 한국교회 앞에 다시 가져오며,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교회의 주체로 함께 세워 가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새롭게 성찰하도록 초대한다.

저자/로버트 뱅크스 역자/송인수 출판사/IVP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총회에서는 총회 목회전산부의 활성화와 교단적 디지털 사역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을 모집합니다.

디지털미디어사역위원회는 총회 미디어 홍보와 성경TV운영, 유튜브제작, 총회홈페이지 관리 및 효율적인 온라인 소통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산하 전국 교회의 교역자(전도사도 가능)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준비위원장 홍석영 목사
사무총장 송진석 목사

접수 및 문의 : 송진석 목사 010-4012-8901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